

2005 **03** March

문화예술정보

122 HIGHLIGHT

공연 | 극단 미추 「THE OTHER SIDE」

극단 컬티즌 「세상을 편력하는 두 기사 이야기」

전시 | 2004 올해의 예술상 미술 부문 〈고난 속에서 피어난 추상〉展

124 NEWS

문예진흥원소식 | 우리원 예술정보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소개

126 CALENDAR

문화달력 | 공연 · 전시 · 문화행사 안내

128 BOOK REVIEW

3월의 새로나온 책 & 음반

북리뷰 「달의 제단」

130 REGION NEWS

지역문화예술활동

최고의 연출가에게는 최고의 무대를, 젊은 연출가에게는 거장으로 받들움할 수 있는 기회를, 관객에게는 세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공연과 함께 신선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2005 기획시리즈 Best & First 는 그 두 번째 무대로 극단 미추의 「THE OTHER SIDE」와 극단 컬티즌의 「세상을 편력하는 두 기사 이야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극단 미추 「THE OTHER SIDE」

「THE OTHER SIDE」는 세계적인 극작가 아리엘 돌프만의 작품으로 일본 신국립극장이 극단 미추 손진책 대표에게 연출을 의뢰하여 2004년 4월 세계 초연으로 공연되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2004년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에서 한국 초연으로, 연극계의 최정상급 배우 권성덕, 김성녀와 신예 정호봉의 개성 있는 연기가 뛰어난 앙상블을 이루며 공연되어질 것입니다. 「THE OTHER SIDE」는 전쟁 중인 두 나라의 국경지대를 배경으로 인간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국경, 벽, 차별, 편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경계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비극의 순환을 우화적으로 가슴 아프게 그린 작품입니다.



극단 컬티즌 「세상을 편력하는 두 기사 이야기」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극작가 베쓰야쿠 미노루가 창작하여 요미우리 문학상을 받은 바 있는 「세상을 편력하는 두 기사 이야기」를 2004년 동아연극상 작품상, 평론가협회 올해의 베스트3 등으로 선정된 「바다와 양산」의 송선호가 연출하였습니다. 「바다와 양산」에서 보여준 섬세한 연출로 극사실주의 연극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송선호 연출이 이번 공연에서는 희곡에 담겨 있는 시적인 은유를 최대한 살리면서 간결하게 생략된 무대를 사용하여 관객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백이 충분한, 여유 있는 무대를 제공합니다. 이번 작품은 전무송, 이호재, 오길주, 정동환, 정규수 등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기대되는 배우들이 또다른 돈키호테 이야기를 만듭니다.

THE OTHER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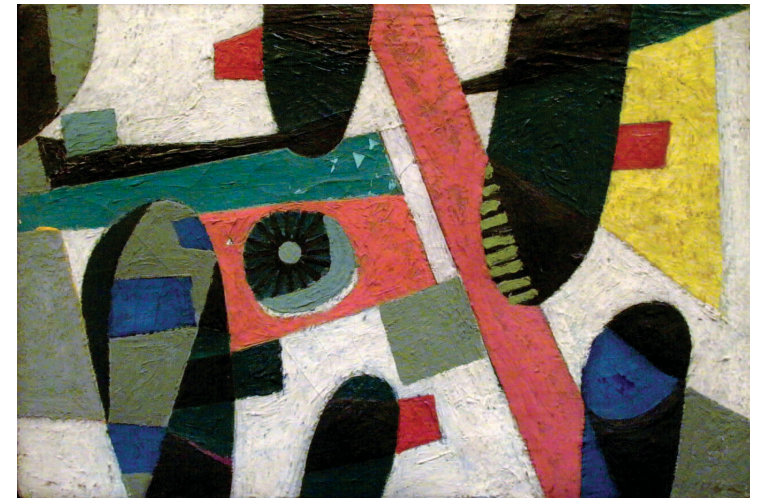
공연일시 : 3월 18일(금) - 4월 3일(일)
 화 - 목 7시30분 / 금 - 토 4시, 7시30분 / 일 2시 / 첫날 · 월 공연없음
 공연장소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5,000원 / 사랑티켓 참가자
 공연문의 : (02) 747-5161
 www.michoo.co.kr

세상을 편력하는 두 기사 이야기

공연일시 : 3월 24일(목) - 4월 10일(일)
 수 - 목 7시30분 / 금 3시, 7시30분 / 토 - 일 3시, 6시 / 월 · 화 공연없음
 공연장소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 일반 30,000원 / 학생 20,000원 / 사랑티켓 참가자
 공연문의 : (02) 765-5476

2004 올해의 예술상 미술 부문 <고난 속에서 피어난 추상>展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제정한 '2004 올해의 예술상' 수상 기념 행사인 <고난 속에서 피어난 추상>展이 2005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미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난 속에서 피어난 추상>展은 암울한 현대사 속에서 진행된 한국의 초기 추상미술의 역사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읽고 재해석하려는 '한국 현대미술 다시 읽기'의 마지막 기획전시이다.



전시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초기 추상미술에 관한 메타비평 연구를 통해, 한국 추상미술의 유입과 전개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과 운동사적 관점 너머의 미술작품과 미학적 성취들을 분석·연구함으로써, 그 구체적 양상과 의미를 규명한다. 당시의 미술작품들을 한자리에 다시 모아 놓고 보여주는 일에 그쳐왔던 그간의 전시방법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비평적·미술사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김경 김구림 김병기 김서봉 김영주 김창렬 김환기 남관 박서보 변영원 유경재 유영국 윤명로 이봉열 이세득 이용노 장성순 전성우 전혁림 정규 정문규 정상화 정점식 조용의 주경 홍종명 황용업 등 원로작가들의 1960년대 중반 이전의 작품 약 110점이 선을 보이게 된다. 기획자인 오상길 씨는 지난 6년간 총 1만 2천여 종에 달하는 한국 현대미술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10차례의 학술 심포지엄과 11차례의 전시를 기획했으며, 52명의 작가 및 비평가들과의 대담을 진행해 오면서 8권의 자료집 『한국 현대미술 다시 읽기』 I, II, III, IV 시리즈를 출간해 왔다.

전시가 시작되는 3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숭동 마로니에미술관 3층 강당에서는 전시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세미나가 열리며, 김미경(강남대 교수, 미술사), 김찬동(전시기획자, 경기대 겸임교수), 오상길(전시기획자, 작가) 씨가 발제와 토론을 맡는다. 전시와 세미나 관람은 무료이며,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전시도록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시제목
 고난 속에서 피어난 추상
 전시기간
 2005. 3. 17 - 3. 30
 전시장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1,2전시실
 전시기획
 오상길